

STARCRRAFT®

LEGACY OF THE VOID™



BLIZZARD ENTERTAINMENT

공허의 아이들

작가 MATT BURNS

은폐한 관측선이 샤쿠라스의 칙칙한 하늘 위를 떠돌았다. 밤낮없이 행성을 순찰하는 수많은 자동 무인 비행체 중 하나였다. 이 관측선은 그중에서도 수도인 탈레마트로스 중심부의 작은 구역을 순찰하는 녀석이었다.

사방으로 수십 킬로미터씩 뻗은 탈레마트로스는 금속과 돌 때문에 마치 거대한 파충류 가죽처럼 보였다. 표면에는 수천 개의 뾰족한 탑이 솟아 있었다. 도시에 점점이 박힌 수정 조명이 두꺼운 안개 층에 굴절되어 둔중하게 빛났다. 밤의 이 시각에는, 사위가 조용했다. 아이어 프로토스도 네라짐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다. 관측선이 감지한 움직임이라곤 도시에 있는 파수기나 다른 보안용 무인 비행체들뿐이었다.

관측선에 달린 둥글납작한 감지 매트릭스가 거대한 곤충 눈처럼 좌우로 회전하며 움직임을 세밀히 조사했다. 관측선은 입력된 광경 대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무인 비행체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감지한 모든 위협에서 탈레마트로스의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 위협에는 주민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위협도 포함됐다.

네라짐과 아이어 프로토스의 미묘한 관계도,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최근 왜 극에 달했는지도, 관측선이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무인 비행체가 할 일이란 단 하나, 통합 정부인 델람의 존속을 돕는 것이었다.

비정상적인 것을 감지하지 못한 관측선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길을 되짚어 가려고 방향을 돌렸다. 그때 이상 현상이 감지되었다. 델람 성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경보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파수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

관측선은 조사를 위해 중력장 추진기를 작동시켜 성채 쪽으로 이동했다. 도시를 대부분 가린 안개 위로 우뚝 솟은 방추형 건물이었다. 어슴푸레 빛나는 표면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이 종횡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성채는 거대한 원판 위에 지어졌는데, 그 원판은 낮에는 보통 공중으로 떠올라 성채 전체를 들어올렸지만 밤에는 지상에 내려왔다. 성채 꼭대기 부근의 창문에 길다란 깃발이 걸려 있었다. 델람의 상징인 서로 겹치는 네 개의 원이 빛나는 금실로 수놓인 깃발이었다.

성채 위에 다다른 관측선은 창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부유했다. 건물 안에 있는 파수기에 쿼리를 보냈지만 응답은 없었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움직였다. 은폐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관측선은 감지기로 위장을 간파했다. 네라짐 남성의 형상이었다. 눈이 아이어 프로토스의 푸른색이 아닌 녹색이었다. 뒤통수에서 늘어진 신경삭이 네라짐의 전통에 따라 끊겨 있었다. 하지만 관측선은 이방인의 신원까지 알아낼 순 없었다. 저그 히드라리스크 해골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손목에 감긴 강화 건틀릿에서 차원검이 솟으며 빛을 발했다. 그는 창틀 바깥으로 작은 호를 그리며 검을 휘둘렀다. 델람 깃발이 건물에서 분리되어 떨어졌다. 깃발은 돌돌 말리며, 아른거리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창가엔 새로운 깃발이 내걸렸다. 녹색에, 가장자리가 찢기고 너덜너덜한 깃발이었다. 보라색 수정 스물 일곱 개가 수놓여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본 네라짐의 빛나는 눈이 은폐 상태인 관측선에 고정되었다. 성채 안에 나름의 감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결코 관측선을 볼 수는 없을 터였다. 어쩌면 그런 장치를 이미 설치한 모양이었다. 관측선은 건물 안 무엇인가에서 에너지가 고동치는 것을 감지했다.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발각되었음을 인지한 관측선은 창문 반대편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네라짐이 손을 뻗어 차원검을 무인 비행체의 금속 동체에 박아 넣었다.

외톨이 관측선은 긴 연기 꼬리를 남기며 하늘에서 곤두박질치고, 마침내 아래 깔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보라준은 바닥에 지팡이를 꽂고 눈을 감았다. 순간이동 단상이 발동하여 그녀를 탈레마트로스 하층에서 도시 가장 위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샤쿠라스 궤도에서 네라짐 수송선이 아이어 프로토스 불사조 편대와 충돌하는 홀로그램 기록이었다. 파열되는 보호막. 산산조각 분리되는 금속 동체와 몸통들. 고통에 찬 사이오닉 비명은 수송선에 탄 스물 일곱 네라짐이 영원한 밤과 하나가 되며 멈췄다.

보라준은 이 기록을 수도 없이 보았다. 눈을 감으면 그 모습만 떠올랐고, 밤에 꿈을 꾸어도 그 모습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다시 한 번 질문했다. 보라준은 델람의 군대, 황금 함대에 네라짐이 합류하는 것을 언제나 반대했었다. 동족이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뭔가 더 했어야 할까? 만약 그랬다면 그 스물 일곱 명은 아직 살아 있을까?

그렇다면 성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까?

"또 이 사실을 아는 이가 누구지?" 보라준은 건틀릿에 내장된 사이오닉 링크에 생각을 투사하며 눈을 떴다.

순간이동 단상 바깥에서 바람이 울부짖으며, 그녀의 복면과 보라색 로브를 미친 듯이 휘날렸다.

"신관 아르타니스 님과 집행관 셀렌디스 님 외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자한이 링크를 통해 대답했다. "두 분은 항성계 반대편에서 황금 함대의 작전을 감독하다 이 소식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샤쿠라스에

도착하는 데는 한 시간쯤 걸릴 겁니다. 모한다르와 광전사 몇 명을 보내 그동안 성채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짧은 침묵 후에 자한은 덧붙였다. "신관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지.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만."

왜 아르타니스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지 짐작이 갔다. 보라준은 신관회에서 가장 강하게 그를 비판하는 인물이었다. 아르타니스와 다른 아이어 프로토스들은 보라준이 델람의 활동에 반대할 때마다 보라준과 그녀의 "네라짐 경향"에 유감을 표했다. 집단주의 철학을 지닌 아이어 프로토스들은 애초에 다수의 의견에 맞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주, 전체에 따르기 위해 상식을 희생했다.

아르타니스가 스물 일곱 네라짐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후, 보라준과 아르타니스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아르타니스의 부관들은 그가 황금 함대 일로 너무 바쁘다고 했다.

'너무 바쁘다.' 생각하니 다시 분노가 차올랐다. 죽은 이들을 애도할 시간조차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네라짐의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신관회의 다른 프로토스에게도 알리지 않은 건 의외로군." 보라준이 말했다. "이 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모양이야.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거지." 아이어 프로토스인 아르타니스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이상하고 특이한 일이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네라짐 지도자인 모한다르의 도움만 구하다니.

"현명한 행동 같은데요. 네라짐이 성채를 장악했다면 아이어 프로토스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자한이 대답했다. "최근 일어난 일들을 생각할 때 더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난 후 네라짐 수백 명이 황금 함대를 떠났다. 많은 아이어 프로토스는 이 이탈을 반역 행위로 보아 분노했고, 두 프로토스 사회에서는 작은 다툼이 여러 번 발생했다. 두 사회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있었다. 하지만 스물 일곱 명의 죽음은 뭔가 어두운 것을 깨워, 그들이 한때 억눌러 두었던 증오를 드러내게 만들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느냐?" 보라준이 물었다.

"안타깝게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을 안겨 드렸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릴. 넌 최선을 다했다, 나의 친구 자한."

그녀의 심복 중 자한처럼 능력 있고 믿음직한 이는 드물었다. 그는 보라준의 정보망으로서 탈레마트로스에서 있는 네라짐에 대한 정보와, 그들과 아이어 프로토스 사이에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자한이 아니었다면, 성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준은 절대로 알 수 없었으리라.

이 사건 자체도 보라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언제나 동족에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델람이나 아르타니스에 대해 시위를 벌이고 싶어하는 네라짐은 대부분 그녀의 승인을 받으러 왔다. 어쩌면 성채에 침입한 이들은 그녀가 절대로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을 점거한다는 건 보라준의 성향에 비추어 보아도 과격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감행했다고 정말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최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아르타니스의 결정은 문제의 일부일 뿐이었다. 사건이 있는 이후에도 아르타니스와 신관회의 다른 아이어 프로토스는 황금 함대를 준비시키는 일을 차갑고 계산적으로, 마치 기계처럼 밀고 나갔다. 심지어 그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방법을 모색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함대를 준비하고, 저그의 손아귀에서 아이어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종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머릿속이 꽉 찼는데, 스물 일곱 명의 죽음에 무슨 신경을 쓰겠는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한이 물었다.

보라준이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단상은 속도가 줄어들며 부드럽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단상에서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니 축축하게 몸을 휘감는 안개와 차가운 밤공기가 느껴졌다. 과거를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 스물 일곱 명을 살릴 수는 없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동족이 다시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막는 것뿐이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조사하마. 모한다르에게 크게 기대할 수 없단 건 우리 둘 다 아는 얘기이니."

지금은 고인이 된 대모 라자갈의 석상이 모한다르 앞에 우뚝 서 있었다. 등이 굽은 노 네라짐은 전 지도자의 모습을 올려다 보았다. 라자갈은 저그에게 고향을 잃고 샤쿠라스로 온 아이어 프로토스를 환영해 주었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녀는 델람의 기틀을 닦고 네라짐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었다. 그의 시선을 받아치는 석상의 눈은 생전의 대모가 지녔던 그 절제되고 고요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모한다르는 몸을 떨고 석상에서 눈길을 돌렸다. 그는 라자갈처럼 불길한 예감에 민감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강렬한 불안감이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그의 영혼을 휘감고 있었다. 주위 모든 것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전율했다. 머리 위의 어둑어둑한 하늘은 무한히 넓고 그 어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다.

성채 주위를 순찰하는 아이어 프로토스 광전사들도 같은 것을 느꼈을지 궁금했다. 그들은 건물 바깥마당에서 짝을 지어 행진하며, 성채에 다가오는 모든 이를 감시했다. 거즈를 덮은 듯 두터운 안개 속에서도 그들의 갑주는 선명한 금색과 흰색 음영으로 번뜩였다. 광전사들은 의무 수행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모한다르는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아이어 프로토스를 하나로 묶는 집단 의식인 칼라를 통해 그들이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있음은 알고 있었다.

광전사들의 젊음이 부러웠다. 노쇠한 관절에서 고통의 물결이 다시금 번져 나오자 모한다르는 무게 중심을 다른 발로 옮겼다. 수세기를 살아 온 그의 몸은 오래 서 있는 것을 버티지 못했다. 이럴 때면 모한다르는 자신이 칼라에 속하지 않은 네라짐이라는 사실이 특히 기뻐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가 겪는 고통을 모든 이가 알고 말았을 테니.

"모한다르? 이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소?" 신관 아르타니스가 모한다르의 건들릿에 달린 사이오닉 링크를 통해 물었다.

모한다르의 맥박이 빨라졌다. 머릿속이 다시 뒤죽박죽되었다. 아르타니스와 집행관 셀렌디스는 샤쿠라스로 돌아오는 중에, 성채에서 네라짐 반란군을 몰아낼 계획을 의논하러 모한다르에게 연락한 참이었다.

아르타니스는 모한다르의 혼란을 눈치챈 게 분명했다. 신관이 말을 이었다. "탈레마트로스가 깨어나기 전에 네라짐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오. 시간이 핵심이오. 셀렌디스가 광전사 한 부대를 이끌고 성채로 들어가 반란군을 체포할 거요. 그녀는 피를 보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소."

"네." 모한다르는 재빨리 대답하며 지금껏 나누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오늘 밤 자신이 쓸모없다는 기분이 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사고력은 걱정스러울 만큼 빠른 속도로 감퇴하고 있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았지만, 신관회 구성원들은 필시 알고 있으리라. "내가 그대의 위치에 있지 않아 다행이군요." 늙은 네라짐이 말을 이었다. "어쨌든 우리의 목표가 이 상황을 되도록 조용히 타개하는 거라면, 그대의 계획은 옳습니다."

"의견이 일치해 기쁘오. 샤쿠라스에 도착하는 즉시 그대에게 연락하겠소. 뭔가 상황이 바뀌거든 부디 우리에게 알려 주시오."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그리하겠습니다, 신관이여."

'그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모한다르의 입에서 너무나도 쉽게 튀어나왔다. 자신을 비난하는 보라준과 다른 네라짐들이 옳은 것일까 궁금해졌다. 그는 정녕 자신의 동족을 희생해 가며 너무 자주 아이어 프로토스의 편에 섰던가? 하고많은 시간 중 하필 왜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른 것일까?

'이것이 당신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자갈 님? 델람? 수천 년 떨어져 있었던 프로토스 종족이 하나가 되는 것?' 무심결에 전 대모의 석상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며 모한다르는 생각했다. 죽기 전 라자갈은 모한다르에게 얘기했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모든 게 더 나아질 거라고.

"언젠간 내 딸도 그것을 이해하리라." 라자갈은 말했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대의 도움이 필요할 터."

"모한다르 님!" 광전사 하나가 안개를 뚫고 뛰어들어와, 한 주먹을 가슴에 대고 경례를 했다.

"무슨 일이지?" 모한다르가 물었다.

전사는 성채 안마당으로 통하는 넓은 계단을 가리켰다. 계단 아래쪽에 한 형상이 서 있었다. 유연한 몸에 보라색 로브를 걸치고 지팡이를 든 네라짐이었다. 한쪽 어깨에는 히드라리스크 해골이 장식되어 있었다. 몇 년 전 그 외계인들이 샤쿠라스를 침략했을 때 그녀가 직접 죽이고 얻은 전리품이었다.

보라준.

"내가 알아서 하마." 모한다르는 광전사에게 말했다. "임무로 돌아가라, 젊은 전사여."

늙은 네라짐은 바빠 걸음을 재촉했다. 저그 뼈로 만든 지팡이가 발밑의 회색 돌에 부딪혀 딸각딸각 소리를 냈다. 다시 한 번 관절을 찌르는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보라준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한다르를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본 그녀는 라자갈을 떠올리게 했다.

보라준은 라자갈과 같은 당당한 태도, 수많은 네라짐이 고상하고 아름답다 여기는 호리호리하고 조각 같은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유사성은 눈에 이르러 끝이 났다. 라자갈이 지녔던 내면의 평온함이 보라준에게 없었다. 아니... 딸의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뭔가 사나운 것, 뭔가 위험한 것으로.

"엔 타로 아둔, 장로님." 계단에 다다른 모한다르에게 보라준이 말했다.

"엔 타로 아둔." 모한다르는 생각을 그러모았다. 황금 함대 사건으로 언쟁을 벌인 이후, 보라준과 그는 별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오리라 생각했다." 드디어 그는 말했다. "탈레마트로스에서 벌어지는 일을 네가 모를 리가 없지. 비록 밤에 벌어진 일이라도 말이다."

"직접 제게 알려 주셨다면 더 간단했을 텐데요."

"신관 아르타니스가 비밀을 지켜 달라 부탁했다." 모한다르가 말했다.

"그는 또한 셀렌디스와 광전사 부대를 보내 무력으로 네라짐을 진압할 작정이지요. 우리 동족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적어도 그 부대에 네라짐 전사를 포함시키는 것 정도는 고려했어야지요."

'흥미롭군.' 그녀는 모한다르가 예상한 것보다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심복 중 누군가에게 사이오닉 링크 대화를 감시하라고 시킨 걸까? 상관없었다. 모한다르 자신도 정보를 물어다 주는 지지자들을 데리고 있었다.

"실제로 고려했다만, 아이어 프로토스끼리 일을 수행하는 게 더 현명한 길이라 결론을 내린 게지. 성채 점령은 델람에 대한 반역 행위이다. 범인과 손을 잡은 다른 나라짐도 있을지 모르고... 어쩌면 군 안에까지 말이다. 신관 아르타니스가 뭘 원하든, 우리 지지해야 한다." 모한다르가 말했다. "중요한 건 결속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 동족의 안녕이지요. 성채를 점령한 나라짐이 뭘 원하는지 연락은 취해 보셨나요?" 보라준이 말했다. "이런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그들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모한다르가 말했다. "안에 있는 이름 모를 자와 연락을 취해 보려고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어. 나라짐은 성채 안 파수기들을 제어해 입구를 역장으로 막고 있다."

"그렇군요." 보라준은 몸을 돌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게냐?" 모한다르가 터벅터벅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보라준은 멈춰서 고개를 돌리고, 부드럽게 빛나는 한 눈으로 모한다르를 흘겨보았다. "아르타니스와 셀렌디스가 도착하려면 한 시간은 걸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라짐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서 나쁠 게 뭡니까? 저는 장로님처럼 쉽게 그들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라자갈의 딸은 계단 꼭대기에 도달했다. 감히 그 발자취를 따르려는 자에게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 뒤로 안개가 몰려들었다.

아치형 성채 입구에서 푸른 역장이 창백하게 빛났다. 건물 위층에 있는 창문들에서도 장애물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반투명한 보호막 너머로는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 텐데." 보라준이 말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저들은 듣지 않을 게다. 이성적인 프로토스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아." 모한다르는 지팡이를 땅에 꽂고, 추락한 관측선 잔해를 가리켰다. "또한 반란자들과 토론을 벌이면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지. 다른 이들도 그에 영향을 받아 델람에 반하는 행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통합된 사회에 살고 있어.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일지 잘 생각해야지. 우.."

"우리 동족과 아이어 프로토스를 위해서." 보라준이 그의 말을 맺었다. "저 또한 통합을 추구한다는 것을 장로님도 아실 텐데요."

이 또한 아르타니스와 다른 신관회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였다. 보라준이 델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었다. 동족의 희생이 따르는 통합을 반대할 뿐. 칼라를 따르는 이들이 아이어에서 도망쳐 샤푸라스에 피신한 후, 보라준은 고향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황금 함대의 전쟁

기계를 위해 델람이 행성에서 자원을 짜내는 것을 보았다. 젊은 네라짐이 아이어 프로토스의 전통을 지지하며 자기 전통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 네라짐의 문화가 바뀌고, 쇠퇴하는 것을 보았다. '약해지는' 것을.

델람은 통합의 약속을 구현했지만, 그 통합은 언제나 아이어 프로토스에게 유리하게 보였다. 통제권을 쥔 것은 언제나 그들인 듯했다. 심지어 네라짐의 고향에서도.

"네가 아르타니스에게 대항하면, 다른 네라짐이 이런 반체제적인 활동을 하는 걸 부추기는 셈이 된다."
모한다르가 말했다.

그의 사이오닉 목소리에는 희미한 비난의 어조가, 이 사건에는 보라준의 책임도 있다는 미묘한 암시가 서려 있었다. 다른 이가 그랬다면 보라준은 격분했으리라. 그러나 모한다르에게는 화를 내기 어려웠다. 이 노인은 어머니와 절친한 사이였다. 라자갈이 죽은 후, 자신을 거의 삼켜 버린 슬픔과 비통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준 이도 모한다르였다.

모한다르가 네라짐의 지도자로 임명되었을 때 보라준이 항의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는 보라준보다 나이가 많았고, 오랫동안 라자갈을 보좌했다. 최근 몇 달간, 점점 더 많은 네라짐이 모한다르가 아닌 보라준을 지도자로 원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노인의 은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라준은 이런 요구를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보라준 자신도 모한다르가 과연 동족에게 최고의 지도자인지 종종 자문하는데도. 그는 충분히... 그냥 때로는 아르타니스에게 맞서는 모습도 보여 줬으면.

"네라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라준이 말했다. "그런 자유가 우리 존재의 초석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와 아이어 프로토스의 다른 점이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지요." 보라준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한다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아는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보라준은 빙글 몸을 돌렸다. 안개 자락이 그녀 주위를 휘돌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역장 너머에 서 있었다. 역장에 형체가 왜곡된 탓에 희미한 윤곽과 불타는 에메랄드빛 눈만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보라준은 그 부드러운 사이오닉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텔루스. 보라준의 심복이자, 한때 그녀에게 전투와 철학에 대해 배웠던 자긍심 높은 전사였다. 보라준은 기뻐다. 텔루스라면 자신의 말을 들으리라.

"성채를 장악하다니," 그녀는 말했다. "대단한 재주로구나, 젊은 텔루스. 너의 배짱에는 박수를 보내마. 하지만 도시 안의 감정이 격해진 이때,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것 같구나."

텔루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보라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원하는 게 무엇이더냐?" 모한다르는 지팡이를 땅에 두드리며 말을 맺었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보라준은 역장 쪽으로 다가갔다. 역장에서 발산되는 사이오닉 에너지 물결 때문에 피부에 감각이 없어졌다.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한다. 너와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전사들의 죽음에 분노..."

"말을 아끼십시오." 텔루스의 목소리는 거의 사이오닉 정신 공격에 가까울 만큼 날카로웠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승리에 대한 그릇된 감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전략일 뿐이다. 우리의 불길을 약하게 만들어, 결국 불씨만 남게 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한다면, 신관회의 아이어 프로토스는 뭐든 자기들 멋대로 하는 데 성공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해 싸워 왔는지 우리 스스로 잊고 말 테니. 이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스승님?"

"물론 기억한다." 일 년도 더 전에, 심복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라준이 한 말이었다. 그녀는 네라짐에게 신성한 산맥인 나스자르를 채굴하자는 신관회의 제안에 맞서 그 연설을 했다. 수세기 동안 보라준의 동족은 그곳으로 여행해 명상하고, 자신의 뜻대로 공허를 다루는 훈련을 했다. 공교롭게도 그 산은 샤푸라스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이 매장된 곳이기도 했다. 결국 보라준은 신관회를 설득해, 그 산을 채굴한다는 계획을 버리게 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시는군요." 텔루스가 말했다. "모한다르와 다를 바 없어지셨습니다. 신관회의 또 다른 공허한 목소리가 되셨어요. 어차피 라자갈의 딸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만."

모한다르가 텅기듯 앞으로 나섰다. "고인이 된 대모를 존경으로 대하라."

보라준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어 그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라자갈과 비교되는 데 익숙했다. 신관회
구성원들은 종종 보라준이 그녀의 어머니와 더 비슷하길 기대했다. 그들은 라자갈의 이름을 자신들의 뜻을
추구하기 위한 무기처럼 휘둘렀다... 쉬운 일이었다. 이미 고인이 된 전 대모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동의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라자갈의 이름이 이렇게 오용되면서, 많은 네라짐 젊은이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라자갈의 흔들림 없는 고요함과 통합에 대한 철학을 약함으로 보았다. 어머니가 기억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뀐 데는 많은 부분 보라준의 책임이 있었다. 여러 번, 그녀는 공개적으로 라자갈의 결정을 비판했다.
신관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어머니를 어떤 상징처럼 이용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보라준은 그게 다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라자갈과 분리하고 싶어했다.
그 거대한 그늘에서 기어 나와 자신만의 유산을 창조하고 싶었다.

"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보라준은 말했다. "그 사고와, 아르타니스의 대응에 항의했지."

"당신의 지지자들을 기쁘게 할 만큼만 했지요." 텔루스가 답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보라준은 모한다르도 있는 이곳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것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어쩌면 모든 네라짐이 황금 함대를 떠나는 게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는 아이어 프로토스를 우리 행성에 받아들이고, 피신처를 제공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저그에게서 고향을 되찾는 걸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네라짐이 목숨을 잃을까? 적어도 수천이겠지. 우리 목숨은 샤쿠라스와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아껴야 한다. 우리 것도 아닌 행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한다르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보라준은 말을 이었다. "아이어 프로토스는 너를 몰아내려고 병사들을 보낼 생각이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느냐? 도시에 있는, 샤쿠라스에 있는 온 네라짐이 아이어 프로토스에 대항해 들고 일어나겠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어쩌면 죽음도. 나는 너와, 우리 동족을 지키고 싶다."

"살아서 우리 문화가 밤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느니, 핏속에 그 불길을 지닌 채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텔루스가 말했다. 역시 보라준의 연설에 나온 말이었다. "아이어 프로토스더러 오라 하십시오. 우리는 평화적으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코르살라 아둔, 스승님."

그리고 텔루스는 성채 안쪽의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코르살라 아둔..." 모한다르가 되뇌었다.

"저도 들었습니다." 보라준이 대답했다. 텔루스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코르살라 아둔'은 네라짐이 전투를 앞두고 하는 말이었다. "우리 둘 다 아둔을 만날 때까지."란 의미의 작별 인사로서, 그 말은 한 전사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이 없음을 의미했다. "설마 텔루스는..."

보라준의 발밑에서 대지가 신음하며 뒤틀렸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녀는 온몸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 머리 위 성채 꼭대기에서 폭발이 솟아, 안마당을 에메랄드색 불꽃으로 환히 밝혔다. 보라준은 모한다르의 팔뚝을 움켜쥐고 건물 옆면으로 그를 밀었다. 바위 덩어리가 주위로 떨어지며 충격파를 내뿜어 골이 뒤흔들렸다.

진동이 멈추자 보라준은 위쪽의 피해를 살폈다. 날렵한 침탐으로 끝나던 성채 꼭대기가 이제는 녹은 금속과 갈라진 바위로 덕지덕지 장식되어 있었다. 성채를 파괴하려고 폭발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 탈레마트로스를 깨우려고 일으킨 것이다.

텔루스, 그리고 안에 있는 다른 프로토스들이 앞으로 있을 일을 목격할 관중을 원했던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 모한다르가 말했다.

"뭐가요?"

"폭발 말이다. 아르타니스가 사이오닉 링크로 내게 접촉했다. 궤도 조선소 몇 군데에서도 폭탄이 터졌다는구나. 희생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르타니스와 대화를 이어 나가느라 모한다르는 잠시 조용해졌다. "신관이 곧 도착할 게다. 일단 도착하면, 셀렌디스와 그녀의 광전사들이 성채 안으로 순간이동해 반란군을 체포할 것이야."

"그게 바로 텔루스가 바라는 겁니다." 보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신관회를 당황시키고 골치 아프게 만들려는 단순한 반항 정도이길 기대했었다. "그는 아이어 프로토스와 전투를 벌이다가 자기 목숨을 희생할 생각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제 말은 들을 겁니다."

모한다르는 조용히 무게 중심을 다른 발로 옮겼다. 건틀릿에 내장된 사이오닉 링크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발산됐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신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끼리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군."

"아직 이 일을 평화롭게 해결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아르타니스는 우리에게 일단 물러나 달라고 했다." 모한다르가 말했다.

"그럼 그러시든가요." 이 말은 보라준이 의도했건 것보다 더 모질게 튀어나왔다.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모한다르에게 등을 돌렸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 사실은 웬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자기 지지자가 이런 행동을 벌일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조짐이 있었을까? 그녀가 그 조짐을 무시했던 것일까?

모한다르가 발을 질질 끌며 역장 쪽으로 걸어갔다. "이걸 뚫으려면 파수기나, 뭔가 다른 종류의 무기가 필요할 게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무기를 찾을 시간이 없지."

"우리요?"

"네 말이 맞다. 아이어 프로토스의 개입 없이 이 일을 끝낼 수 있다면 모두에게 더 좋겠지."

모한다르의 지팡이가 땅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는 웅이진 두 손을 역장 쪽으로 뺐었다. 노쇠한 몸이 피로에 떨렸다. 모한다르의 두 손바닥 사이에서 에메랄드색 공허 에너지가 작은 구체를 이루었다.

"뭐 하는 게냐? 그냥 서 있을 거냐, 날 도울 거냐?" 노인이 신음하듯 말했다. 그의 사이오닉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울 만큼 작았다. "내가 늙긴 했어도 아직 널 놀라게 할 재주가 좀 있단다."

보라준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깨달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놓고 두 손을 뺐어, 드러나지 않는 것에 정신을 집중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주위에 존재하는 공허를 더듬어 최대한 에너지를 모았다. 손 안에 구체가 형성되며 손바닥에 감각이 없어졌다. 동시에, 보라준과 모한다르는 그 에너지를 역장에 집중했다. 장애물을 뚫고 구멍이 입을 벌렸다. 둘이 기어서 통과하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성채 안쪽 회랑에 흩어져 있던 파수기 파편이 모한다르의 발에 채였다. 보아하니 텔루스와 정체 모를 동료들은 파수기를 분해해 역장 생성기를 분리한 뒤, 그걸 이용해 성채 입구에 영구적인 장애물을 친 모양이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란군은 지략이 뛰어나고 공학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위험했다.

"잠깐 쉬자꾸나." 모한다르는 주 회랑의 부드럽고 단조로운 벽에 무너지듯 몸을 기댔다. 장벽을 뚫는 건 생각한 것보다 더 힘겨웠다. 정신이 다시 아득해졌다. 다가올 일을 헤쳐 나가려면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다.

"물론이죠." 보라준은 모한다르 맞은편 벽에 몸을 기대고 옆에 지팡이를 놓았다. 그를 응시하는 녹색 눈이 어둑한 전당 안에서 별처럼 빛났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뭔가 해야지. 그 말은 네가 맞다." 모한다르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아까 말한, 네라짐이 황금 함대를 나오는 문제는..." 그는 말끝을 흐렸다. 이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싶진 않았지만, 보라준이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게 아직도 충격적이었다.

"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어 프로토스에게 새로운 고향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보라준이 말했다. "황금 함대를 꾸리게 도와준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우리 전쟁도 아닌데 네라짐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어는 모든 프로토스의 고향이다." 모한다르가 반박했다. "우리가 거기 사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곳은 우리 모두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 상징을 되찾는 대가는요?"

"널 불안하게 하는 게 동족의 죽음이나? 아니면 황금 함대가 성공한다면, 동족 중 누군가는 아이어에 사는 걸 선택할지도 모른단 생각이냐?" 모한다르가 물었다.

"둘 다입니다." 보라준이 말했다.

모한다르는 그녀의 솔직함에 놀랐다. 왠지 무장 해제되는 기분이었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자신보다 어린 네라짐을 응시했다. 어쩌면 흐릿한 조명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보라준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던 사실이 다시 한 번 느껴졌다.

라자갈의 석상, 그녀가 남긴 유산이 모한다르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모한다르가 세상을 떠나면 네라짐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 라자갈과 보라준 사이에 놓인, 단순한 징검돌로 기억할까? 라자갈의 그늘 속, 그다음엔 보라준의 그늘 속에서 살며 자기 뜻은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쉽게 잊힐 지도자로 기억할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생각들은 모한다르의 영혼을 훈훈하게 덥혀 주었다. 개인주의와 개인의 유산이라는 네라짐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런 것은 집단주의적인 아이어 프로토스라면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적어도 그들 중 대부분은.

만약 자신이 동족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보라준에게 달렸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조종할 생각은 없었다. 보라준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녀의 선택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뿐이었다.

"넌 너무나도 자주, 우리와 아이어 프로토스의 차이만을 보는구나." 모한다르가 말했다.

"우리는 다르니까요." 보라준이 덧붙였다. "그게 우릴 특별하게 하고요."

"그래. 하지만 우리 같기도 하단다. "모든" 프로토스를 정의하는 건 다른 이들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무릅쓴다는 점이지. 모두를 위한 희생 말이다."

"모두를 위한 희생"이라고요? 그건 아이어 프로토스를 정의하는 거죠." 보라준이 대답했다.

"우리의 유산이기도 하다. 언제나 그랬지. 아이어를 떠난 첫 번째 네라짐이 이곳에서 피난처를 찾았을 때부터."

"떠난 게 아니죠. 쫓겨난 거지." 보라준이 반박했다.

"네라짐은 달랐으니까. 아이어 프로토스는 그래서 네라짐을 무서워했지.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에도 불구하고, 네 어머니는 칼라를 따르는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을 환영해 주었지. 그들에게 등을 돌리면, 첫 번째 네라짐에게 등을 돌렸던 그 프로토스들과 다를 게 없으니까."

모한다르는 벽에서 등을 뺐다. 비틀거리며 앞으로 발을 옮겨 보라준에게 가까이 기댔다. "우리 그보다 나아야 한다. 우리 그보다 나올 수 있어." 노인은 말을 이었다. "우리 문화는 델람을 겪어낼 만큼 충분히 강하다. 통합을 포기해야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 네가 동족을 설득해 황금 함대를 버리게 한다면, 우리 자긍심과 명예를 저버리는 거란다... 네가 지키고자 그토록 힘들게 싸웠던 네라짐의 방식 말이다."

보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한다르의 말을 곱씹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난 늙었다." 모한다르가 계속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네가 우리의 대모가 되겠지. 네라짐은 너의 어머니를 따랐듯, 그리고 지금 나를 따르듯 너를 따를 것이다. 너의 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야. 그리고 넌 우리 동족을 지키는 것과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단다."

모한다르는 주름진 한 손을 들어올렸다. 건틀릿에 달린 사이오닐 링크 시스템이 밝게 고동쳤다.

"아르타니스와 셸렌디스가 곧 도시로 순간이동할 거야. 가야 해. 빨리. 텔루스가 충고에 따르지 않으면, 그와 맞설 준비는 되어 있느냐?"

"따를 겁니다." 보라준이 고집했다.

하지만 모한다르는 그녀의 마음속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코르살라 아둔"은 가볍게 쓰이는 문구가 아니었다. 스스로 한 희생의 맹세를 돌이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었다.

"가자꾸나." 회랑 아래쪽으로 발을 옮기며 노인이 말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보자꾸나."

둘은 침묵 속에 성채 안을 이동하여 회의실에 도착했다. 회의실로 통하는 거대한 출입구는 안에 있는 미지의 것으로 그들을 초대하듯 활짝 열려 있었다. 보라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육을 긴장시킨 채 먼저 들어갔다. 그녀는 델람 회의실에 벌어진 계획적인 파괴 공작에 충격을 받고 입구에서 멈춰섰다.

성채의 방과 복도는 대체로 아무 장식이 없고 평범했다. 하지만 성채의 심장부, 신관회가 여러 의제를 논의하는 곳은 달랐다. 그 방은 해가 가며 바뀌어 왔다. 최근 바뀌었을 때에는 복잡한 문양이 벽에 새겨지고, 다양한 프로토스 부족을 상징하는 색색의 깃발이 걸렸다. 방 측면에 세워진 수정 판에는 별과 은하들이, 샤쿠라스 상공의 인공위성에 입력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투사되고 있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다. 벽에 새겨진 아름다운 문양 위로 깊게 패인 자국들이 내달렸다. 수정 판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색색의 깃발들은, 네라짐 깃발만 제외하고, 뜯겨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엔 스물 일곱 개의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긴 천이 달려 있었다... 성채 바깥에 내걸린 거대한 깃발의 더 작은 형태였다.

텔루스는 혼자가 아니었다. 얼굴 일부를 저그 히드라리스크 해골로 가린 다른 네라짐 넷이 그와 함께 있었다.

다섯 반란자는 신관회에서 회의 탁자로 사용하는 거대한 금속판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 위에는 성채의 홀로그램 영상이 아른거렸다. 홀로그램 위에 데이터가 마구 출력됐다. 보아하니 텔루스와 그 추종자들이 성채 전체의 보안 장치를 장악한 모양이었다.

보라준은 모한다르가 뒤따라 들어오는 동안 재빨리 다른 네라짐 반란자들을 살폈다. 얼굴을 가렸음에도 그녀는 몇몇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다. 과거에 자신의 연설을 들은 젊은 전사들 같았다. 모두 차원검 건틀릿을 하나씩 차고 보라색 로브를 입고 있었다.

다섯 반란자는 홀로그램 영상에서 눈을 돌려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보라준이나 모한다르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들에겐 뭔가 차분하고 자신만만한 분위기가 있었다.

"두 분이 역장을 뚫는 걸 봤습니다." 텔루스가 홀로그램을 가리켰다. 짜증이 난 듯 쉼 목소리였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둘 중 누구에게든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려고 온 게 아니라면, 우릴 막으려고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요."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보라준이 호소했다. 텔루스의 마음을 돌릴 기회는 딱 한 번뿐임을 알고 있었다.

"너는 나를 안다. 내가 애쓰고 있단 걸..."

"전 당신을 알았지요." 텔루스의 말에 담긴 분노는 네라짐 차원검처럼 차갑게 타올랐다. 그 강렬함이 보라준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난 오랫동안 당신의 그늘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방식을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당신이 전수해 준 기술과 지혜로 무장하며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겐 나만의 그늘이 있습니다. 난 당신의 그늘이... 텅 비었던 걸 알았어요."

"여기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 넌 자신을 희생해서 프로토스 사이에 폭력을 불러일으킬 셈이지." 말을 이으며 보라준은 모한다르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쪼글쪼글한 육체가 강렬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곧 튀어나갈 사람이 근육을 잔뜩 긴장시키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요." 텔루스가 대답했다. "우린 동족에게 이 멍청한 델람과 그들의 전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원동력을 줄 겁니다. 네, 물론 폭력이 있겠지요. 네, 아이어 프로토스도 네라짐도 목숨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잃는 목숨은 우리가 아이어 침공에 참가하고 잃는 목숨보다 훨씬 적을 테지요."

성채 홀로그램 위에 붉은 구체가 나타났다. 구체는 부드럽게 깜박이며 공중에 둥둥 떠 있었다.

"감지기가 우리 머리 위에서 차원 분광기를 발견했습니다." 텔루스의 추종자 하나가 보고했다.

"셀렌디스와 그녀의 광전사들입니다. 성채 안 회랑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보라준은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와 모한다르가 행동해야 했다. 텔루스와 그 추종자들이 이성애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으리라. 보라준은 모한다르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가올 일에 맞설 준비를 했다.

"너희가 아이어 프로토스의 피를 흘리고 싶다면, 먼저 우리 피부터 흘려야 할 것이다." 모한다르가 말했다.

반란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텔루스만 빼고. 그는 전투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녹색 눈은 보라준에게 고정되어, 의분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 말을 기억해라, 젊은 전사여. 넌 균형을 찾아야 한단다...' 모한다르의 목소리는 오로지 보라준을 향해, 보라준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울렸다. 그녀는 모한다르의 눈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쁨과 슬픔을 보았다.

갑자기 모한다르가 사라졌다. 그가 서 있던 곳에는, 꿈틀거리는 연기가 따리를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지팡이만 남아서 앞으로 넘어지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노인은 한 반란자 뒤에 나타났다. 모한다르는 손바닥으로 그 전사의 잘린 신경삭 끝부분을 가격했다. 타격 지점에서 공허 에너지가 에메랄드색으로 번뜩였다. 젊은 네라짐은 미처 반격도 하지 못한 채 축 늘어졌다. 그는 바닥으로 무너져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죽은 건 아니었다. 의식을 잃었을 뿐. 모한다르는 폭발적인 공허 에너지를 적의 잘린 신경삭에

흘려보냈다. 네라짐이 개발한, 적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전투 방식이었다.

텔루스와 나머지 반란자들의 건틀릿에서 에메랄드색 차원검이 튀어나오며 쇳소리를 냈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가 있던 방향을 덮쳤지만, 모한다르는 이미 어둠 속에 다시 숨어들어가 있었다. 보라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는 훨씬 민첩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정신을 확장해, 물질의 장막 너머에 있는 공허 에너지를 옮겨주었다.

평생에 걸친 수련을 통해 이전 너무 익숙해진 차가운 불꽃이 그녀의 가슴속에서 타올랐고, 뼈를 통해

확장됐다. 그녀는 그 태고의 에너지를 몸 주위에 누벼 모습을 숨긴 뒤, 빠른 속도로 튀어나갔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네라짐 반란자 뒤에서 다시 나타났다. 잘린 신경삭을 작은 저그 뿔조각들로 장식한 젊은

남성이었다. 보라준은 발꿈치로 전사를 가격해 건틀릿을 산산이 조각냈다. 반란자의 차원검이 확

숫구치더니 사라졌다. 보라준은 상대의 몸 옆을 빙글 돌아 손바닥을 신경삭 곁머리에 내리치며 그의 몸에

공허 에너지를 흘려 넣었다. 전사는 털썩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졌다.

네라짐 하나를 제압하는 사이에 모한다르는 이미 나머지 둘을 처리한 상태였다. 그는 중앙의 탁자에 기댄 채

지친 몸을 떨고 있었다.

보라준은 텔루스를 찾아 방안을 살폈다. 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순간, 공중을 가르는 일격.

보라준은 칼날을 피해 옆으로 몸을 날렸지만 예상했던 공격은 없었다. 적어도, 그녀를 향해서는.

텔루스는 휘몰아치는 연기 덩어리에서 다시 나타났다. 보라색 로브, 신록의 보석들, 딸깍거리는 저그 뼈가 뒤섞인 흐릿한 형체였다. 그의 차원검이 공중에 에메랄드빛 초승달을 그리며 내리꽂히고, 모한다르의 등에 정확히 박혔다. 차원검 칼끝이 노인의 가슴팍에서 튀어나왔다. 깔끔한 일격이었다. 치명적인 단 한 번의 타격이었다.

텔루스는 뒤로 공중제비를 넘어 다시 몸을 숨겼다. 모한다르는 탁자 위로 무너졌다. 그의 몸이 성채 홀로그램 속에 파묻혔다. 그는 몸서리를 쳤다. 또 한 번. 탁자를 부여잡고,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붙잡을 무언가를 찾아 몸부림쳤다.

"모한다르!" 보라준이 달려나갔다.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무너지는 노인의 몸을 받아 안았다. 그녀는 모한다르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다. 보라색 피가 그의 낡은 로브를 적시고 있었다. 모한다르는 흐려지는 눈으로 보라준을 응시했다. 마디가 굵고 뼈만 남은 그의 손가락이 보라준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라자갈... 대모님... 그리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그림자처럼 희미하고 생기가 전혀 없었다.

"돌아오셨군요...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그는 보라준의 팔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하여 노인을 품에 안고 움직이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죽었을 리가 없다.

하지만 그는 죽었다. 알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들끓으며 충격을 몰아냈다. 감정이 솟구치며 몸이 떨렸다. 그녀 주위에 사납게 빛나는 공허의 에너지가 휘몰아치고, 에메랄드 빛줄기가 주변 모든 것을 향해 넘실거렸다.

"텔루스!" 보라준이 울부짖었다.

보라준의 얼굴 오른쪽으로 열기가 휘몰아쳤다.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보라준은 바닥에서 지팡이를 낚아채고 모한다르의 시신을 옆으로 밀었다. 그녀는 텔루스가 공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뒤로 공중제비를 넘었다. 텔루스의 차원검은 허공을 가르고 테이블에 꽂혔다.

"넌 내가 훈련시킨 그 전사가 아니야!" 보라준의 사이오닉 울부짖음에 담긴 힘이 상처투성이 벽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공허의 에너지를 지팡이에 담고, 지팡이 양쪽 끝에 차원검을 밝혔다.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손맛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의 그늘 안에서 너무 오래 살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결코 알아낼 수 없다고요." 그는 보라준의 오른쪽을 향해 게걸음으로 다가왔다. 건틀릿 끝에서 튀어나온 차원검이 허공에 날름거렸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너냐? 네가 남기겠다 선택한 것이 이런 것이냐? 피의 유산?" 보라준은 텔루스의 움직임에 맞춰 방을 돌았다. "살인의 유산?"

"저는 네라짐이 네라짐의 운명에 몰두할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텔루스가 대답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의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지 않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성채 홀로그램에 붉은 불빛이 열세 개 나타났다. 셀렌디스와 광전사들이 건물 위층으로 순간이동한 것이다. 회의실을 향하는 그들을 보안 시스템이 추적하고 있었다. 보라준은 불빛을 흘끗 쳐다보고 다시 텔루스에게 눈을 돌렸다.

"나도 죽일 셈이냐?" 보라준이 물었다.

"그래야만 한다면," 텔루스가 말했다. "코르살라 아둔."

"코르살라 아둔."

두 전사는 동시에 어둠으로 몸을 감싸 움직임을 숨겼다.

보라준은 온 의지를 다해 노여움과, 타오르는 감정들을 제쳐 놓았다. 그런 것들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네라짐 전사들의 결투, 의지력과 인내심의 싸움이다. 단 한 번의 공격... 산 자와 죽은 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뿐이다.

보라준은 왼쪽에서 움직임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형체를 향해 몸을 날렸다. 상대가 자기 거리 안에 들어왔다 느낄 즈음까지 전진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둠을 벗어 던지고 무기를 휘둘렀다.

텔루스도 똑같이 했다. 그 또한 보라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았다.

텔루스의 무기가 보라준의 드러난 어깨를 그슬림과 동시에 그녀의 지팡이에서 솟은 차원검이 그의 가슴을 갈랐다. 텔루스의 상처에서 보라색 피가 솟구쳐 회의용 탁자에 흠뻑러졌다. 젊은 전사는 고꾸라졌다.

보라준은 어깨를 꿰는 고통을 이겨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최후의 일격을 날릴 생각으로 텔루스가 쓰러진 곳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그를 본 순간, 분노가 사그라졌다. 그 전사는 보라준에게 아들과도 같았다.

보라준의 마음속에 혼란과 상실감이 번졌다. 네라짐을 보호하려고, 더는 피가 흐르지 않게 막으려고 여기 온 것인데. 그녀는 실패했다.

"저는... 동족을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텔루스의 목소리는 공허 속 유령의 말처럼 희미했다.

"안다." 보라준은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젊은 전사 옆에 무릎을 꿇었다. 반쯤은 그가 뿌리치리라

예상하면서도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텔루스는 뿌리치지 않았다.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저는... 영원한 밤으로 갑니다..." 텔루스가 말했다. "우리 문화를 지켜 주세요...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할 것이다." 흐려지며 검은색으로 변하는 텔루스의 눈을 바라보며 보라준은 말했다. "그리할 것이야..."

방 바깥에서 셀렌디스와 무장한 광전사들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보라준은 그들을 무시하고

죽은 이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한쪽에는 모한다르가 누워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텔루스가 누워 있었다.

그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알고 아끼던, 두 나라짐이.

한쪽은 스승이었다. 다른 한쪽은 학생이었다. 한쪽은 과거였고, 다른 한쪽은 미래였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둘 사이에 갇힌 존재가, 보라준이었다.

"그녀가 지금 나옵니다." 셀렌디스가 사이오닉 링크로 얘기했다. "다른 이들은 저희가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아르타니스는 칼라를 통해 셀렌디스가 동요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르타니스 또한 아이어 프로토스의 감정을 하나로 묶는 그 집단 의식에 자신의 불안과 분노가

전해지는 것을 겨우 막고 있었다.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왜 보라준과 모한다르가 명령에 불복했는지 이해했다. 네라짐 반란자들은 자신을 아이어 프로토스의 손에 희생함으로써 샤쿠라스에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모한다르와 보라준의 개입이 그런 사태는 막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모한다르의 죽음에 대해 셀렌디스가 올린 보고가 떠올랐다. 그 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여전히 힘겨운 일이었다. 모한다르는 신관회에서 가장 현명한 자였고, 네라짐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군이였다.

'내가 막을 수도 있었어.' 그는 생각했다. '폭발이 일어나 도시를 깨우기 전에 광전사 부대를 보냈어야 하는데... 모한다르와 보라준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함대에서 벌어진 사고 이후 네라짐을 달래기 위해 더 확실한 행동을 했어야 했다는 건 아르타니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날의 희생자는 네라짐만이 아니었다. 불사조 조종사 두 명... 칼라를 따르는 두 명 또한 그날 목숨을 잃었다. 그 사건은 수많은 아이어 프로토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들은 수송선의 네라짐 조종사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비난했다. 아르타니스를 따르는 전사들 중 일부조차 이제 네라짐과 함께 싸울 수 없다며, 미래의 참사를 막기 위해 두 개의 분리된 군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타니스는 네라짐 장례식에 참석하기보다 이런 아이어 프로토스를 진정시키기로 선택했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델람의 반을 소외시키는 위험이 따랐으니. 하지만 그는 함대의

핵심적인 힘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겼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칼라를 따르는 이들에게 집중하리라 마음먹은 것이다.

아이어 프로토스의 긴장감을 잠재우는 데는 며칠이나 걸렸다. 마침내는 그들도 함대의 임무가 자신들의 개인적인 불안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칼라를 통해, 아르타니스의 동족은 균형을 되찾고 평화로운 협력의 자세로 돌아갔다. 그러나 네라짐은 아니었다. 많은 네라짐이 그 사건과 아르타니스의 대응을 용서하지 못했고, 쓰디쓴 감정을 지우지 못했다.

그중에는 보라준도 있었다. 모한다르가 죽었으니 그녀가 네라짐의 지도자가 될 터였다. 이런 흐름이 아르타니스를 걱정스럽게 했다. 그와 보라준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아르타니스는 오늘 그녀의 행동에 놀랐다. 네라짐 반란군이 원하는 걸 얻는 것을 막으려고 보라준이 자기 목숨을 걸다니. 탈레마트로스에서 아르타니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자 벌인 일일까? 아니면 고귀한 의도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아르타니스는 알 수 없었다. 이제 보라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아르타니스는 성채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눈은 몰려든 군중에게 못박혀 있었다. 그가 샤크라스로 순간이동했을 때, 건물 주위엔 이미 수백 명의 프로토스가 모여 있었다. 두 무리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푸른색과 금색이 조화된 고상한 로브를 입은 아이어 프로토스였고, 다른 하나는 저그 뼈로 장식한 특유의 어둡고 해진 복장을 입은 네라짐이었다. 성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루머가 군중

사이에 퍼져 나갔다. 근거 없는 소문과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분노 때문에, 양쪽은 폭력을 휘두르기 직전이었다.

아르타니스는 피를 보는 일을 막으려고 무장한 광전사들을 불렀다. 셀렌디스의 부대에 네라짐을 넣는 걸 꺼려했음에도, 이번엔 네라짐 전사들도 소집했다. 이 델람 병사들이 아이어 프로토스와 네라짐 군중 사이에 서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가까스로 막고 있었다.

군중들이 갑자기 낮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어 프로토스와 네라짐의 눈이 똑같이 아르타니스의 어깨 너머를 향했다. 그는 몸을 돌려 군중이 보는 것을 보았다. 계단 꼭대기, 사라져가는 안개 속에 한 형체가 서 있었다.

보라준이, 시신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다.

피로에 젖은 팔이 화끈거렸다. 어깨에 난 얇은 상처에서 보라색 피가 흘러 내렸다. 보라준은 무릎을 꿇고 모한다르를 발치에 내려놓았다. 다시 일어서면서, 그녀는 군중들의 사이오닉 목소리를 들었다. 끔찍한 폭풍을 예고하는 바람처럼, 불만스러운 술렁임이 높아졌다.

"네라짐이 잘하는 행동이지. 반역자들."

"너희 아이어 프로토스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면서 왜 멋대로 판단을 내리지?"

"성채는 원래 네라짐 거야! 저걸 지은 건 우리 조상들이라고!"

"아이어 프로토스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나? 무력으로?"

"너희 네라짐을 상대하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저 시체 보여? 모한다르 님이야!"

길고 검은 복면을 쓰고 있던 네라짐 몇몇이 그들과 아이어 프로토스 사이에 서 있는 델람 병사들 쪽으로
몰려갔다. 폭력의 조짐은 전염병처럼 번져 갔다. 더 많은 프로토스가 병사들의 저지선을 뚫으려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만!" 보라준은 온 힘을 다해 소란을 뚫고 사이오닉 목소리로 고함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모한다르 님이 죽었어!" 보이지 않는 네라짐이 날카롭게 외쳤다. "아이어 프로토스 짓이야!"

"우리야!" 보라준이 대답했다. "우리가 한 짓이다!"

이번엔, 군중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하나씩 하나씩 프로토스는 움직임을 멈추고 보라준에게 몸을 돌렸다.

네라짐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아이어 프로토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아마도 칼라를 통해 혼란을 나누고 있었으리라.

"모한다르를 쓰러뜨린 것은 네라짐이다." 보라준이 말을 이었다. "성채를 장악한 네라짐이지. 그들은 우리가 아이어 프로토스에게 등을 돌리고 델람을 깨뜨리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말끝을 흐렸다.

보라준은 모한다르의 뒤틀린, 생명 없는 몸을 내려다 보았다. 그가 없으니 네라짐을 지도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몫이다. 그녀에게는 동족의.... 자기 세상의 미래를 결정할 힘이 있었다.

함대를 떠나라고 네라짐을 설득할 수도 있었다. 그럼으로써 네라짐의 목숨을 살리겠지만, 그러면 자신의 동족은 아이어 프로토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에게 등을 돌린 이들로 기억되리라.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답이 아니었다. 네라짐과 아이어 프로토스 사이의 나쁜 감정을 더 키워, 텔루스 같은 폭력적인 세력을 더 낳기만 할 터. 델람은 그 긴장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모한다르가 옳았다. 네라짐은 그보다 더 나올 수 있었다. 보라준은 통합과 동족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다. 아이어는 그 균형에서 중요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우리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 마침내 보라준이 입을 열었다. "나 또한 그렇다. 이 델람이란 것은 우리에게 전쟁 같았다. 델람은 우리 결의를 시험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네라짐이다. 우리 조상들은 미지의 공포를 무릅쓰고 이 행성에 와서 새로운 정체성을 빚어냈다.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동료를 버릴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강하다.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아닌가?"

모여든 네라짐 사이에 변화의 물결이 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묘한 자세 변화, 표정 변화를 보면 그들이 자신에게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노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델람을 지원하고, 아이어 프로토스가 우리 고향을 되찾는 걸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보라준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 흘렀다. "전쟁에서 많은 이가 목숨을 잃으리라. 하지만 정당한 대의를 위해 잃는 것이다. 결국엔, 승리하든 패배하든, 우리는 네라짐으로 남으리라!"

군중은 평화롭게 흩어졌다. 그 이후 광전사들이 네라짐 포로들을 성채에서 데리고 나왔다. 희미하게 빛나는 푸른 에너지 장이 젊은 반란자들을 가렸다. 사이오닉 에너지가 웅웅거리는 구릿빛 금속 수갑이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지나가며 보라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과는 나중에 이야기하리라.

마지막 두 광전사는 텔루스의 시신을 양쪽에서 들고 있었다.

"여기 놓아라." 보라준은 모한다르의 시신이 놓인 곳을 가리켰다.

"모한다르 님 옆에요?" 한 광전사가 물었다. "이놈은 살인자입니다."

"그래도 장례 의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네라짐 방식이야."

광전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텔루스의 시체를 내려놓았다. 보라준은 무릎을 꿇고 네라짐의 시신을 조사했다.

그녀에게 죽음의 일격을 맞은 그의 가슴팍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보라준은 텔루스의 이마를 짚고

속삭였다. "너는 잘 싸웠다, 젊은 전사여."

"그자에게 그런 경의를 표하다니 참으로 고결하오."

황금색 전투 예복을 입은 아르타니스가 보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모한다르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차갑고 주름진 한 손을 꼭 움켜쥐었다.

"그는 동족을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보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내

친구였지요."

아르타니스가 고덕였다. "나 또한 나 자신의 친구를 잃었소. 앞으로 더 많은 친구를 잃을 듯해 두렵고. 하지만

네라짐이 지지해 준다면 우린 승리하고 아이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요. 오늘 그대가 해준 말에, 그리고

성채 안에서 해준 행동에 감사하오. 그대는 동족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요."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지할 겁니까?"

"그리할 거요."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이 말은 보라준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텔루스에게서 눈을 돌려 아르타니스의 두 눈을 올려다 보았다. "난 아이어 침공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겁니다." 보라준은 말했다. "하지만 난 모한다르가 아니고, 어머니인 라자갈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병력을 전쟁에 집중시키고 이 행성을 위험하게 버려 두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나는 네라짐 파견대와 뒤에 남아 샤쿠라스를 지킬 겁니다."

"그 결정을 이해하고, 또한 존중하오." 아르타니스는 선 채로 보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대의 동족과 그대의 세계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지 아는 건 그대요."

보라준은 신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하오?" 아르타니스가 시신 쪽을 손짓했다. "그대가 허락한다면, 내가 모한다르의 시신을 안고 장례 의식에 참석하고 싶소만."

"함대 준비로 바쁠 텐데 그럴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아르타니스에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타당한 질문이었다. 놀랍게도 신관은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부터 시간을 낼 거요."

보라준은 끄덕이고 텔루스의 시신을 들어올렸다. 아르타니스도 모한다르의 시신을 들었다.

함께, 그들은 성채 계단을 내려갔다. 탈레마트로스 최상층에서 선녹색과 주홍색 수정이 밝게 빛나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렸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머리 위에 보이는 별들 사이에서는 수천 수만의 프로토스가 황금 함대의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가올 어느 날, 황금 함대는 아이어를 향해 떠나리라. 함대와 함께 떠나는 네라짐 중 많은 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기억될 것이고, 그들이 드리우는 그늘 안에서 영광스러운 새 유산이 탄생하리라.